

雲門

불기 2568년
여름호
통권 제168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분을 펼치다

- ☘ 따가운 햇살, 세찬 물소리, 더운 바람, 다 여름! / 화엄반 경운
- ☘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듯이 이 여름이 없으면 겨울 또한 오지 않으리 / 화엄반 재선
- ☘ 이 더위에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지처럼 넓은 마음 되기를 / 화엄반 혜성
- ☘ 더운 여름, 이름만 여름일 뿐, 더운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 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 사교반 삼우
- ☘ 출가위운문인出家爲雲門人이 기세사호豈細事乎아. 출가하여 운문인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 사집반 해인
- ☘ 열심히 땀 흘리고 이목소 튜브 안에서 보는 구름이 기대됩니다 / 치문반 재현
- ☘ 뜨거운 여름 태양처럼 우리의 열정도 이글이글 / 치문반 재하
- ☘ 번뇌 속에서 보리의 꽃을 피우는 여름이 되길 / 치문반 여연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남을 가르치려면 자신부터 교육해라 명성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사리암에 오르면서 진광
08 교수논단	삼장三藏에 나타난 사제윤리師弟倫理 고찰考察 ③ 영덕
15 풍경소리	이 마음 채선
16 외부기고	붓다, 직설로 보는 존재의 비밀 강소연
20 학인논단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 팔정도八正道 ② 혜석
24 선배 탐방	번뇌밭아 지혜밭기 - 붓다선원 진경스님을 찾아 뵙고 - 선혜
29 想	가지산 해묵
30 수행의 두레박 하나	성냄에서 벗어나는 마음챙김 혜명
34 수행의 두레박 둘	정견으로 가는 길 정견
38 운문, 운문인	운문사 칸타빌레 편집부
40 차례법문 하나	쌀 한 톨의 선용기심善用其心 혜성
43 화랑동산	절에서 이렇게 신나도 되나요? - 운문사 포교전법부 소개 - 포교전법부
44 차례법문 둘	진정한 yolo의 길 선재
48 출가 이야기	마흔을 기다리지 않은 이유 혜건
51 이 한 권의 책	진휴 속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 '법화경 마음공부'를 읽고 - 정연
52 운문논평	지적知的 겸손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불전사물佛殿四物 - 범종梵鐘

남을 가르치려면 자신부터 교육해라

명성 / 운문사 회주



운문사가 비구니 교육 중심 도량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름철에 운문사 역사문화관 현관식이 있습니다. 운문사 역사문화관은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와 활동 등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관중管仲은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대십년수목十年樹木 백년수인百年樹人’ 라고 하였습니다. 운문사역사문화관 건립은 온고溫故하여 지신知新할 수 있는 교육 불사의 또 다른 마당이 될 것입니다.

나는 평소 세계 불교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7년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남방불교에서의 비구니 승가를 복원하고 인정해 줄 것을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태국 베삭대회에서는 태국의 종정 스님께 비구니 승단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두는 비구·비구니의 이부 승가를 인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기록한 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사를 성취하려면 불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비구니 승가는 어느 때, 어느 나라보다도 수행, 교육, 예술, 문화 등 불법을 계승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호암미술관에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전시는 ‘불교미술 속 여성’과 ‘제작과 후원의 주체로서 여성’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기획 전시한 홍라희 관장님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심에 큰 찬사와 지지를 보내고자 학인 스님들과 함께 미술관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가 요구하는 전법교화의 또 하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에서의 비구니와 여성의 역할은 경전 곳곳에 설해져 있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선재동자가 친견한 53선지식 가운데 사자빈신 비구니를 비롯한 4명의 우바이가 등장하여 법을 설해주고 있습니다. 또 『승만경』은 부처님 당시 10대원을 세우고 부왕夫王(영친왕)과 함께 그 나라의 7세 이상의 남녀를 교화하여 대승에 향하도록 한 승만 부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의 여성은 신심단월信心檀越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가르치는 역할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화엄경』 「수미정상계찬품」에서는 “비유컨대 어두운 데 있는 보배, 등불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불법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으면 지혜 있더라도 알 수 없다(비여암중보譬如闇中寶 無燈불가견無燈不可見 불법무인설佛法無人說 無燈불가견無燈不可見)”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신부터 교육해라(육교여 선자교欲教餘 先自教)”라는 말이 있듯 자신이 먼저 올바른 견해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즉 가르치는 자신의 행위가 가르친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육근을 잘 단속하여 항상 즐겨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배운 것을 모두에게 바르게 베푸는 눈 밝은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슷

사리암에 오르면서

- 반복의 힘 -

진광 / 운문사승가대학 강주

얼마 전부터 사리암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다가 요즘은 거의 매일 올라갑니다. 사실 어떤 연유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올라가고 싶어서 오를 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사리암은 제가 처음 출가하여 행자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나반존자 기도처로 수많은 불자들이 기도하러 오시는 나한기도 도량이지요. 저는 48년 전에 사리암에서 약 1년 정도 행자 생활을 하고 운문사 강원에 내려왔습니다. 여러 추억들이 깃들어 있어 인연이 깊은 도량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올라가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에 살면서 산길을 걷는 것이 참 좋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리듬과 율동에 따라 가장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자기 내면의 지적 활동 능력입니다.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단순한 동작과 나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걷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내가 걷는 것인지 다리가 걷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걷습니다. 사리암을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두 손에 스틱을 잡고 등산화를 신고 천천히 걷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비가 내리면 비 내리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몸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픈 대로 걷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본래대로 되 돌아옵니다. 때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몸이 한없이 무거워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신기하게도 무겁고 찌뿌듯한 듯한 느낌은 다 사라지고 평소와 같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오르다 보니 힘들지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반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천천히 나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올라갈 때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16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사리암에 올라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올라간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소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반존자님을 친견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일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보살님이 사리암에 매일 올라가는 반복의 힘이 바로 기도이며, 불보살의 가피일 것입니다.

수행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의 힘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정진 바라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익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익숙했던 세간의 괴로운 삶의 방식을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출세간의 삶의 방식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정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익숙하게 정해진 마음이나 탐욕과 성냄, 무지,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 건너가는 일은 매우 낯설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이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저곳으로 건너가는 일입니다. 수행은 잠깐 했다 안 했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하는 일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서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될 때까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수행에 힘을 얻습니다. 결국 힘을 얻는 곳이 힘을 더는 곳이지요. 꾸준히 반복하고 정진해야 깊어지고, 거기서 차이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 '그 다음의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고 싶은 수행자라면, 혹은 수행에 좀 더 진일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부지런히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자기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움으로, 엄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三藏에 나타난 師弟倫理 考察 ③

영덕 / 운문시승가대학 학장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三藏에 나타난 師弟倫理

1. 붓다의 교육원리와 교수법
2. 초기불교의 사제윤리
 - 1) 여래십호를 통한 스승상
 - 2) 『大方廣經』에서 읽는 사제윤리
 - 3) 『마하박가』에 규정된 弟子法과 화상의무
 - 4) 『사분율』에 나타난 제자상

3. 대승불교의 사제윤리

- 1) 大乘經典에 보이는 師弟倫理觀
- 2) 『僧羯磨』에 나타난 師資篇
- 3) 『菩提道次第論』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
4. 붓다 가르침의 현대적 의의

III. 나오는 말

참고문헌

3. 대승불교의 사제윤리

1) 대승경전에 보이는 사제윤리관

대승불교를 표방한 보살들은 보살불교의 사상과 실천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대승불교의 경전들을 편찬한다. 이들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철저한 無我思想과 緣起에 기반하여 보살의 서원 및 실천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나간다. 중생들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 종교적인 의례 내지 의식이 나타나고 초합리적인 성격의 종교성을 지니게 된다. 이들 가운데 이상적 교사로서의 善知識 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大方廣佛華嚴經』: “善知識은 곧 慈母가 되는 것이니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집이기 때문이다. 善知識은 곧 慈父가 되는 것이니, 무수히 많은 여러 일들로 중생들을 유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양육하고 수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어떤 악도 짓지 않도록 이끌어서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이니, 교화하여 보살계를 배우도록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인도자가 되는 것이니, 교화하여 피안의 길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니, 모든 번뇌의 병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雪山이니, 밝고 깨끗한 지혜의 약을 길러 주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勇將이라고 하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공포를 막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견고한 배라고 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曠師공이라고 하는 것이니, 一切智慧 法實의 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¹⁾

• 『大般若波羅蜜多經』: “常啼菩薩摩訶薩이 十方의 모든 부처님들께 사뢰어 말씀드리되, '어떤 분이 저의 善友가 되십니까. 제가 마땅히 몸소 가까이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十方의 모든 부처님들이 常啼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法通菩薩摩訶薩이 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長夜의 밤길에 참되고 청정한 선우가 되어 주리니, 능히 그대를 섭수하고 보호하여 구하고자 하는 바의 가장 높은 등정각을 성취하게 할 것이며, 또한 그대에게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의 方便善教를 잘 배우게 할 것이다. 저가 능히 長夜의 어둠 속에서도 그대를 섭수하여 이익이 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의 선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응당 몸소 친근하여 공경하고 공양할지니라.' 라고 하였다.”²⁾

• 『妙法蓮華經』: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善根을 심은 까닭으로 나는 곳마다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면 그 선지식은 佛事로써 이로움과 기쁨을 보여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가장 높은 等正覺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선지식은 가장 큰 인연이 되는 것으로,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고 가장 높은 等正覺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발휘시켜 주시는 분입니다.”³⁾

• 『大般涅槃經』: “만약 네 가지 법을 떠나서 涅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무엇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선우를 몸소 가까이 하는 것이요, 둘째는 專心하여 법을 듣는 것이며, 셋째는 마음을 다잡아 깊이 思惟하는 것이고, 넷째는 如法하게 수행하는 것이다.”⁴⁾

• 『大般涅槃經』: “가장 진실한 선지식은 이른바 보살과 모든 부처님 세존이시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항상 세 가지로 잘 調御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畢竟軟語이고, 둘째는 畢竟呵責이며, 셋째는 軟語呵責⁵⁾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살과 모든 부처님은 곧 진실한 선지식이다.”⁶⁾

위의 다섯 가지 인용문은 善知識에 관한 것으로 '스승과 제자의 윤리' 를 함축하고 있다. 華嚴·般若·法華·涅槃 등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 가운데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지식을 만나면 교화를 받고 깨달음을 이루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에서 선지식은 진리 추구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큰 인연이 된다. 둘째, 선지식은 몸소 가까이 친근하고 공경 공양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은 자는 全心全力으로 그 가르침을 사색하여 마음에 새겨 바르고 정확하게 실천해야 한다. 셋째, 선지식은 참되고 청정한 벗으로서 여러 가지 지혜의 방편을 배우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이로움을 주는 보호자이다. 이러한 선지식을 『大方廣佛華嚴經』에서 '慈母, 慈父, 양육수호자, 위대한 스승, 인도자, 훌륭한 의사, 雪山, 勇將, 건고한 배, 뱃사공' 의 열 가지 비유로 설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인격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모체이며, 많은 이

1) T.278 『大方廣佛華嚴經』 k,58, p,769

2) T.220 『大般若波羅蜜多經』 k,398, p,1062

3) T.262 『妙法蓮華經』 k,7 p,60

4) T.372 『大般涅槃經』 k,25, p,510

5) 통제하기 힘든 것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거나 여법하지 못할 때 호되게 꾸짖어 주는 것을 때에 맞게 調御하는 것을 말한다.

6) 上揚書, k,25, p,511

익을 자연스럽게 얻게 하고, 惡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養育者인 동시에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또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도반이고 번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산과 같이 지혜를 자라게 하는 터전이 되기도 하며,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막아주는 용감한 장수이고, 생사의 고해를 건너게 해주는 배와 같은 존재이다. 동시에 진리의 섬에 도달하게 하는 뱃사공이기도 하므로, 참되고 청정한 벗인 선지식은 위와 같이 고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教育的 守護者인 것이다. 넷째, 이러한 선지식과의 만남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스스로 힘을 다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와, 자비의 실천 등 선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선지식은 상대방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부드러운 말이나 꾸짖는 말, 또는 부드러워야 할 때 부드럽고 꾸짖어야 할 때 꾸짖을 수 있는 適材適所에 알맞은 말을 구사함으로써 상대방을 잘 調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스승을 향한 제자의 도리를 反芻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스승을 가까이 하여 공경하고 여러 가지로써 최선을 다하여 모셔야 한다. ②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잘 들어야 한다. ③ 그 가르침의 내용과 의의를 깊이 사색하여 알게 하고 동시에 마음에 새겨야 한다. ④ 이리하여 터득한 바를 온전히 실천하며 닦아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제자의 윤리는 곧 배우는 자로서 몸소 실천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 가운데 열 가지 비유가 스승이 지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내용은 제자의 임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유익하게 하며 악에 물들지 않고 윤리적인 삶을 지속하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번뇌의 병을 없애고 지혜를 획득하여 공포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제자란 지혜와 복덕을 갖춘 최상의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으로 스승을 공경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제자의 윤리를 반조해 볼 때 제자에 대한 스승의 윤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① 제자가 자신을 존경할 수 있도록 인품과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② 열심히 가르쳐서 잘 배우도록 해야 한다. ③ 가르친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명심하도록 일깨워 준다. ④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⑤ 마침내 지혜와 복덕을 갖춘 知·情·意가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의 경지에 이르도록 돕는다. 이것이 바로 스승의 의무이자 교육적 도리라고 할 것이다.

2) 『僧羯磨』⁷⁾에 나타난 師資篇

• 화상의 행을 제정한 法制和上行法: 어느 때에 여러 비구들이 가르쳐 주는 이[教授者]가 없어서 위기가 반듯하지 못하고 옷 입는 것도 단정하지 못하여 마치 바라문들이 모인 법과 같았다. 그때 한 병든 비구가 제자가 없고 돌보아 주는 사람도 없이 목숨을 마쳤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화상들에게 허락한다. 화상은 제자를 마땅히 아들처럼 생각해야 할 것이며 제자는 화상을 마땅히 아버지같이 생각하여 언제든지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바른 법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게 될 것이며 더욱 증대될 것이다. 법을 청하는 것도 이와 같다. 또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나니, 이제부터는 법랍이 10년이 지난 지혜로운 비구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한다. 또한 화상이 제자에게 해야 할 行法을 제정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만약 제자가 惡見을 내면 악견을 버리고 善見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두 가지 일로써 제

자를 보호할 것이니, 법으로써 보호하는 것과 衣食으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법으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戒定慧를 증장하도록 가르치거나 학문과 경전 외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의식으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입을 것과 먹을 것과 寢寐·坐具·醫藥을 주되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부터 화상이 해야 할 일을 이와 같이 제정하니, 화상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아사리를 의지하는 법을 제정하다(制依止阿闍梨行法) : 어느 때에 새로 수계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의 화상이 涅槃하여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 그 비구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까닭에 바라문이 모인 것과 다름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아사리를 두는 것과 제자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 아사리는 제자를 마땅히 아들이처럼 여길 것이며, 제자는 아사리를 아버지처럼 여겨서 언제든지 서로 가르쳐 주고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법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해야 불법이 더욱 늘어나고 더욱 널리 윤희될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청해야 할 것이니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존자께서 저의 의지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의 의지아사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존자를 의지하여 머물겠습니다.” 세 번 이렇게 말하면 그가 말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혹은 “너의 의지아사리

가 되어 줄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거나 “너는 방일하지 말 것이니라.”라고 말한다. 아사리의 행법은 화상의 행법과 같다.

• 제자의 행을 제정한 법(制弟子行法) : 어느 때에 많은 제자들이 제자로서 지켜야 할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화상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제자가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여 제자로 하여금 화상의 처소에서 제자의 법을 행하게 할 것이니라. 함께 지켜야 할 여덟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거니와 화상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도 안 되며, 다른 비구를 따라가거나 다른 비구를 도반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 제자는 마땅히 맑은 새벽에 화상의 방으로 가서 誦經의 법을 받아 뜻을 물을 것이며, 마땅히 화상이 소변을 본 그릇을 치울 것이며, 마땅히 때가 되었음을 아뢰어야 한다. 제자는 마땅히 하루에 세 번 화상께 여쭈어야 할 것이니, 아침과 정오와 해질녘이다. … 지금 이후로 제자가 수행해야 할 법을 제정하니,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이 행법은 아사리의 처소에서 수행해야 할 행법과 같으니, 문장이 같으므로 여기에 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제자를 꾸짖는 법(呵責弟子法)과 제자를 참회시키는 법(弟子懺悔法), 제자가 화상을 떠나면서 참회하는 법(弟子離和上懺謝法) 등 총 17가지 조항에서 간략하게 아버지와 아들같이 공경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바람직한 사제관계에 관한 문건의 예

7) 『四分律僧羯磨』이라고도 한다. 당나라의 懷素가 貞觀8년부터 景龍 원년(634~707)에 걸쳐 편집하였다. 『사분율』에 의하여 승가의 갈마인 行事作法에 관한 것을 편집한 것이다. 책에는 작자 자신의 서문이 있는데 제목 밑에 “『사분율』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撰號에 “西太原寺 사문 회소가 편집하였다.”고 쓰여 있다. 내용은 17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를 찾아본 것이다.

3) 『菩提道次第論』⁸⁾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

• 『보리도차제』 「보살장경」에서는 수행과 해탈에 있어 스승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① '예컨대 보살이 일체의 실천행인 모든 바라밀과 地, 忍, 三昧, 神通, 摠持, 陀羅尼와 辯才 그리고 회향과 발원 등을 원만히 갖추고자 할진대 반드시 스승에 의존하여야 한다. 스승을 근원으로 삼아 스승에게서 발생되고 스승을 인해 태어나 자라고, 스승이 키우시며, 스승을 인하여 성장 발전하므로 스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니 스승으로 인함을 이해해야 한다.'⁹⁾ ② '해탈하는 데에 있어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생에서 해야 할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尊師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惡趣로부터 나오자마자 이전에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가는 데 있어 스승 없이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말한다. 또 『보리도차제』 「장엄경론」에서는 스승의 조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한다. ① '계정해의 3학을 갖춘 선지식은 調伏·寂靜·近寂靜에 능하고 빼어난 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경륜을 쌓으며, 그것을 잘 깨달아 강설에 능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싫증을 내지 않으므로 이에 의지하는 것이다.'¹⁰⁾ ② 『보리도차제』에서는 스승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일 조건으로 '三學'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자를 가르치는데 유익한 것은 경전을 많이 아는 것과 辯才가 뛰어난 것인데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통하여 그 가르침에 대하여 자유자재하게 말할 수 있다면 실로 선과 교를 모두 통달할 수 있는 뛰어난 조건인 것이다. 선지식 '뉘뉘'는 "대승의 참스승이라면 강설할 때 제자들이 깊이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 실제 수행을 가르칠 때에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알도록 하며, 의미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지 가르쳐야만 한다."고 하였다.

• 다음으로 『菩提道次第』에서 말하는 제자의 입지를 보면 ① 法器 갖추기; '치우치지 않고, 지혜가 있고, 추구함이 있는 이를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릇' 이라고 한다. 법기를 제대로 갖추었을 때 설하는 자의 공덕이 다른 곳으로 사라지지 않고, 듣는 자의 공덕도 사라지지 않는다'¹¹⁾고 하였다. ② 스승을 의지하기 前; 제자가 의지할 스승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스승으로 모시고자 하는 분이 온전한 법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잘 관찰하는 일이다. 이것은 '길을 가본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으로 깨달음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거나 깨달음의 길을 향해 올라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③ 마음으로 스승을 의지할 때 먼저 의지하는 마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마음 깊이 믿는 것(信心)이고,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또 加行으로써 의지하는 방법으로는 첫째는 재물을 바치는 것(布施)이고 두 번째로는 몸과 말로써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승을 의지하였을 때 얻는 이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부처의 지위와 가까워지며 악업과 번뇌에 부림을 당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보살행을 기억하고 갖추게 되며, 구경의 모든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스승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허물이 있을까. 『보리도차제약론』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교수사를 모독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전염병과 나병과 잡병, 마귀와 돌립병과 독기로 인해 죽어가며, 큰 불과 독사, 물과 나찰, 도둑과 마귀와 상비천 무리가 죽여 지옥에 보내니, 언제든지 아사리들의 마음을 절대 건드리지 말지어다. 가령, 미련해서 그랬다면 지옥에서 반드시 불에 타리라. 교수사를 모독한 이들

이 무간나락이라고 일컫는 두려운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구나.’

• 『菩提道燈論』¹²⁾ 「장엄경론」에서 말하는 스승의 덕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복, 적정, 적멸, 수승한 공덕과 정진이 있고, 경전을 많이 알고, 그것을 깨닫고, 말씀씨가 뛰어나고, 자비 그 자체이고, 싫어하는 분별이 다 버려진 선지식을 의지하라.’고 하였다. 또 세존께서 설하신 스승의 자격과 조건을 열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도를 설명하는 선지식을 말한 것으로 ‘조복, 적정, 적멸자’의 단계는 삼학의 공덕을 가진 자이므로 성취의 공덕이라고 한다. ‘수승한 공덕과 정진이 있고, 경전을 많이 아는 자’는 智者의 공덕이며, 智者라고 하더라도 남을 사랑하고, 허물이 없어야 하고, 정진하고, 설하는 것 등에 게으름이 없어야 하며, 또 제자보다 공덕이 뛰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깨닫고, 말씀씨가 뛰어난 자’는 진여를 통달한 스승을 말하는 것으로 제자의 측면에서도 선지식의 수행단계와 조건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경전을 배울 스승으로 의지할 마음이 생길 때에도 먼저 스승이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밀교경전에서 스승의 자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12년 동안 따져볼 수 있으면 따져 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지식의 공덕은 스승이 설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나 증득한 공덕과 통달한

공덕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승이 설하는 법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이상적 교사로서의 붓다 가르침의 현대적 의의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존재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교사를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승불교의 보살은 현실에 있어서 이상적인 教師像이라고 할 수 있다. 四弘誓願의 큰 서원이나 六波羅蜜로 대표되는 대승불교의 보살도는 다른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며 그들의 성불을 돕는 과정에서 자기의 보살계위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선지식의 원래의 뜻은 ‘좋은 벗’ 즉 ‘善友’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불교의 경전에는 진정한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불법의 성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이룬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기불교의 공동체는 그 자체가 모두 좋은 벗으로서의 우정의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다. 선지식으로서의 붓다의 교육원리와 방법이 현대 교육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과 방법은 상호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모든 교육체계는 교육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평가의 4과정이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

8) 『보리도차제』는 켈룩파의 창시자이며 제1대 달라이라마의 스승인 풍카파가 밀교와 현교를 체계화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여러 경론을 주제별로 인용하여 전가를 들고 있다. 스승과 제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살장경」 「장엄경론」 「사백송」 「십법경」 「보운경」 「화엄경」 「현세불타현중심매경」 등에서 인용하고 있다.

9) 풍카파, 칭전 역, 『깨달음에 이르는 길 '람림』, 지영사, 2005, p.68

10) 上揚書, p.69

11) 풍카파, 양승규 역, 『보리도차제약론』, 2006

12) 달라이라마, 양승규 옮김, 『달라이라마의 보리도등론』, 도서출판 시문, 2011

다. 고타마 붓다는 교육에서 방법의 중요성을 실천으로 보여준 교사였다. 둘째, 개별화의 원리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이다. 붓다는 학습자의 수준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적용시켜야 함을 보여주었다. 붓다의 모든 설법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공적인 隨機說法者였다. 셋째,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때맞추어 먼저 해결하는 교육을 중요시하였다. 넷째, 권위주의적 교사상을 배격하였다. 붓다는 스승과 제자 간의 位階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善知識, Kalyāna-mitra' 이라는 말의 뜻과 같이 제자의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하였다. 다섯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방법의 중요성이다. 붓다는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수행이나 체험의 영역에서도 점차적으로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하는 점진적 교육을 선호하였다. 여섯째, 대화와 문답식 교육의 중요성이다. 교육의 성과는 가르치는 자와 학습자 간의 밀도 있는 의사소통이 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 일곱째, 붓다는 탐구학습과 자력에 의한 교육을 장려하였다. 붓다는 '자신은 길을 가르쳐 줄 뿐이며 그 가르침을 따라 목적지에 가고 가지 않고는 가는 자의 문제' 13)라고 하였다. 붓다는 자기 교육은 결국 자신의 문제임을 알려 주었다. 자신을 마지막 歸依處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학습의 궁극적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붓다의 교육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채워주는 교육' 보다는 학습자의 잠재적 소양을 계발시키려는 '이끌어 내주는 교육'의 모범이 되었다. 14) 붓다가 인류의 큰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교육방법의 수승함에 있었다. 적절한 방편시설과 수기적인 교수법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교육 능력이 붓다를 위대한 교육자의 한 전형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IV. 나오는 말

三藏에 나타난 師弟倫理에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삼장을 통하여 붓다라는 최고의 스승을 모신 제자들의 師弟觀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불교사상의 교육학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승가교육에 있어서 교육제도와 함께 師弟間의 마음자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이와 같은 논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불교의 사제윤리가 갖는 현대적 의의는 무엇일까?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보다 성숙된 인격의 주체로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일은 스승의 지도력과 제자의 자발성이 상호 인격적 교감에 의해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불교적 교육은 근본적으로 각자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 지혜롭고 자비롭게 질 높은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同體大悲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비가 스승에게서는 지도력에 의한 교육애로, 제자에게서는 자발성에 의한 존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애와 존경이 발현되는 교육이야말로 불교사상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5)

※ 〈참고문헌〉은 지면상 각주로 대신합니다.

13) 『中阿含經』, k.35(T.1), pp.652c~653a

14) 김용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 제8장 붓다의 교육원리와 교수법

이 마음

재선 / 대교과(4학년)



심화_2학년 해송



어디서 왔을지 모르는 한 물건
이 물음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며
왜 나는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어디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이 마음 어디로 가버리고 어디로 사라질까
이 소리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부터 사라질까
우리와 함께하면서
많은 소리와 감정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

붓다, 직설로 보는 존재의 비밀

강소연 / 중앙승가대학 교수

‘덩어리로 보느냐’ 또는 ‘해체해서 보느냐’.

세상의 종교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란 존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즉, 나는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경우에는 신(God)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 신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한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 뜻을 소명(Calling)이라고 한다. 브라만교에도 브라흐만이라는 창조주가 있다. 유교를 믿는 동아시아에서는 조상신이 나의 근원이 된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가부장적 계보를 제시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신이라는 것 역시 덩어리 개념이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을 한다. 나는 스스로 만든 나의 ‘업業’의 과보(결과물)라는 것이다.

친교 바라문이 무아無我의 설을 듣고 의심이 나서 물었다.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윤회에 있어서 누가 후세에 태어난단 말씀입니까?” 제석천은 대답했다. “과거세에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 업業을 지은 까닭에, 그 ‘업’에서 ‘현재의 몸’이 생겼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다시 여러 업을 짓는다면, 내세에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중략) 자아가 없으면서도 업보業報의 어김없음이, 이 씨와 싹의 관계와 같다.” (『대장엄경론』)

기독교의 경우, ‘나’는 신의 피조물이니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벌하시나이까?”라고 가혹한 운명이 닦혔을 때 따져 물을 수 있다. 또 유교 역시 나의 창조주가 나의 부모라고 하니, 내가 만약 못생겼다면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나요?”라고 따질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 경우 나의 근원은 창조주도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업’이라는 것이다.

위의 『대장엄경론』에서 인용하였듯, 석가모니 붓다께서 불교를 제시했을 때, 당시 브라만교 측에서 질문을 한다. 위의 질문의 취지를 쉽게 풀자면 이렇다. '우리(브라만교)도 윤회설이 있고 너희(불교)도 윤회설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또 무아를 말한다. 우리는 아트만(영혼)이 있어 육신이 죽어도 이 아트만이 윤회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 윤회설이 앞뒤가 딱 맞는데, 너희는 무아라면서 윤회를 주장한다. 무아인데 윤회하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다. 이때 불교 측에서는 '업' 이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영혼', 브라만교의 '아트만' 에 해당하는 또 다른 용어가 '업' 이란 말인가?

인과因果, 원인과 결과

아니다. 여기에 불교의 위대함이 있다. 업을 말하는 그 설명을 자세히 보자. 업이란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과거에 지어서 현재에 받는다, 업보란 씨와 싹의 관계와 같다."라고 한다. 즉, 원인과 결과의 에너지가 맞물려 계속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여타 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다. 즉, 영혼 또는 아트만이라는 '덩어리' 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찰하여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그 '요소' 를 (분해해서) 보느냐이다. 존재(사람)가 적어도 '몸과 마음' 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통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다. 인간의 육신은 유통기간이 평균 74년 정도이다. 누구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대략 기간과 그 과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타 종교에서는 마음(영혼)을 어찌지 못하는 불가항력의 '덩어리' 로 보고 이것을 신에게 의탁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내 영혼을 구제해 달라!"라는 기도를 열렬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을 덩어리로 보지 않고,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해체해서 보는 방법' 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붓다이다. 해체해서 통찰하니, 그것은 원인과 결과(인과)라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불가항력으로 보였던 마음 덩어리는 원인과 결과의 상카라의 연속일 뿐이었다. 더 계속 해체해 나가니 결국 12연기(12단계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과정)로 분해되었고, 이렇게 산산이 분해하고 보니 공안이 드러났다. 그래서 무아無我인 것이다. 붓다께서 "연기緣起를 보는 자, (진정한)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신 진의眞意는 여기에 있다.

'나' 는 '5개의 덩어리(오온)' 로 구성

12연기의 과정을 거쳐 덩어리지는 '나' 라는 존재, 이것을 더 쉽게 (붓다께서는) 오온五蘊이라고 말씀하셨다. 오온이란 다섯 가지의 덩어리란 뜻이다. 풀이하자면, 우리는 '다섯 개의 몸체(덩어리)' 로 구성되었는데 색·수·상·행·식이 이것이다. 색은 물질의 몸체(우선 처음 이해하는 단계에서

1) '부생아신父生我身 모국오신母國吾身: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사자소학四字小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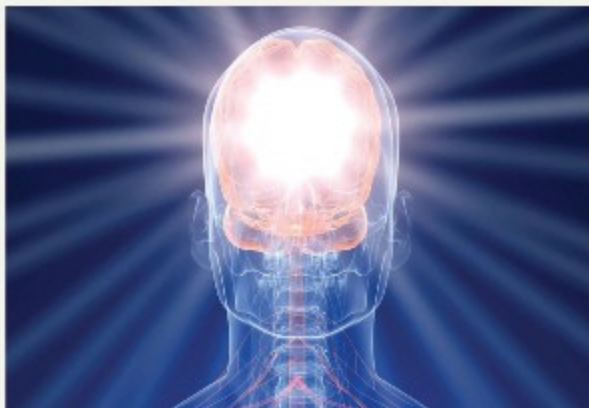
는 육신이라 보면 된다), 수는 느낌의 몸체, 상은 기억의 몸체, 행은 행위의 몸체, 식은 의식의 몸체이다.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삶'이란 것은 그저 오온의 메커니즘(작용)일 뿐이다. 이것을 통찰한 분이 위대한 석가모니 붓다 이시다. 존재의 생성과정과 그것이 영위되는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오온은 그 성품 자체가 '취착(집착)'이다. 그래서 오온을 오취온 五取蘊이라고도 한다. 취하고 집착하는 성품이란, 말 그대로 끈질기게 '들러붙으려는 에너지'를 말한다. 끊임없이 생각에, 기억에, 느낌에, 행위에, 육신에 스스로 들러붙으려고 취착(취하려고 집착)한다. 그래서 괴롭다(고성제). 이것은 스스로의 '자성自性'으로 움직이기에 멈추어지지 않는다. 자성이란, 한번 생겨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기를 쓰고 유지하려는 성품을 말한다. 그러니 한 번 생겨난 부정적인 생각, 기억, 느낌, 행위, 몸체는 끊임없이 다시 생겨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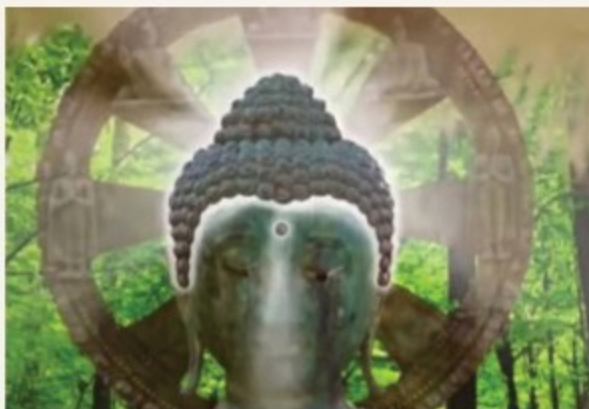
요컨대, 취착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또는 덩어리) 오취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오취온(나) 자체가 괴로움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취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색취온色取蘊, 취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수취온受取蘊, 취착하는 기억의 무더기 상취온想取蘊, 취착하는 상카라의 무더기 행취온行取蘊, 취착하는 알음알이(인식)의 무더기 식취온識取蘊이다.(『대념처경』)

붓다 설법의 요체를 담은 『대념처경』의 「고성제(괴로움이라는 진리)」에는 '나'라는 것을 '오취온'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취착(취하려는 집착)'을 기반으로 하기에 '오취온'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실체이다. 무엇에 취착하느냐. (집성제란) 몸이든 마음이든 느낌이든 한번 생성된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가 스스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 멈출 줄 모르는 이 오온의 작용을 멈추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 신성한 빛과 하나가 된다



신성한 빛(깨달음의 빛)을 조형화한 것이 광배이다

스스로 적용하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석가모니 붓다! 하나의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없애버리는 방법! 윤회를 멈추게 하는 방법! 물론 여기서 자살과 같은 방법으로 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물질의 몸체)만을 '나' 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마음이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공략하는가?

해탈을 향해: 수행의 첫걸음, 사마타

모든 고통은 '나(자아)'가 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보다 정확히는 '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비롯된다. '유아有我'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온의 작용이다.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존재(나)란 오온이다"라고 『대념처경』에서 말씀하신 바 있다. 오온의 작용이란 업행業行을 말한다. 이것은 나를 윤회하게 만드는 근원이다. 업행이란 쉽게 말해, 고질적인 나의 반응 패턴이자 나의 존재 패턴을 말한다. 업은 갈애 또는 집착(집성제集聖論)을 기반으로 한다. 집성제는 살고자 하는 집착, 또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생존에의 집착'이다. 한번 만들어진 몸뿐만 아니라, 한번 만들어진 마음도 스스로 생존을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돌아간다. 이러한 끈질긴 작용을 자성自性(스스로가 스스로를 있다고 착각하고 유지하려는 성품)이라 한다. 이것은 저절로 돌아간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 사실, 조건이 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연기緣起되어 생겨나는데, 너무나 빠른 섬광의 속도로 일어나기에 통찰지가 없으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을 보지 못하니, 이것을 예방하지도 못하거니와 이미 덩어리져버린 결과로서의 고통만 느낄 뿐이다.

오온의 작용(또는 업행)에 우리는 놀아나는 줄도 모른 채, 몸과 마음은 그것의 노예가 된다. 업행의 감옥 속에 살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또 윤회를 반복한다. 실로 업행은 나를 부리는 주인이다. 그래서 먼저, 나(오온의 작용)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먼저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의 무상함을 보는 것. 이것이 붓다 수행의 요체이다. '나(자의식)'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은 사마타(집중) 수행으로 가능하고, 그것(나 또는 오온)의 무상함을 보는 것은 위빠사나(통찰) 수행으로 가능하다. ☸



강소연

불교미술 연구 30년 경력의 베테랑 학자, 교토대학(일본) 불교문화재학 박사, 불교 이론과 불교 수행(사마타+위빠사나 10년)을 겸비하여 명쾌한 해설로 이름 높다. 동국대학 연구교수, 홍익대 겸임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역임. 현역 문화재청 전문위원, 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및 국제위원 등.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 팔정도八正道 ②

해석 / 사교과(3학년)

목 차

1. 들어가며
2. 八正道の 계戒의 요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 2-1. 바른 말[正語]
 - 2-2. 바른 행위[正業]
 - 2-3. 바른 생계[正命]
3. 八正道の 정정의 요소: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 3-1. 바른 정진[正精進]
 - 3-2. 바른 마음챙김[正念]
 - 3-3. 바른 삼매[正定]
4. 八正道の 혜慧의 요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 4-1. 바른 견해[正見]
 - 4-2. 바른 사유[正思惟]
5. 열반과 도道와 과果
6. 나가며

3. 八正道の 정정의 요소: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다음은 팔정도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생각, 감정, 의욕 등의 형태로 마음의 표면 위로 떠오른 '드러나는(pariyutthāna)' 단계의 번뇌를 제거하는 정정의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정정의 요소는 팔정도에서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세 가지 요소로 묶을 수 있다.

3-1. 바른 정진[正精進]

37조도품三十七助道品에서 아홉 번이나 등장하는 정진은 사정근四正勤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四正勤의 첫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은 여섯 감각기관을 보호해서 번뇌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四正勤의 두 번째, 이미 일어난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은 다섯 가지 장애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번뇌에 대처하는 수행법이다. 다섯 가지 장애란 ①감각적 욕구 ②악의 ③게으름[懈怠]과 졸림[昏沈] ④들뜸[掉舉]과 후회[悔恨] ⑤의심疑心이다.

四正勤의 세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어나게 하는 노력에는 칠각지七覺支를 일으키려고 분발하는 수행법이 있고, 四正勤의 네 번째인 이미 일어난 선을 증장시키는 노력은 유익한 명상대상에 끊임없이 마음챙김하는 것으로 대표된다.

3-2. 바른 마음챙김[正念]

마음챙김(sati, 念)이란 마음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며, 분별적인 사유[尋]나 숙고[伺]에

휩싸이지 않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을 뜻한다. 바른 마음챙김은 분명한 앎(Sampajañña, 정지正知)이라는 정신작용과 함께한다. 분명한 앎이란 대상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주석서에는 '분명한 앎'을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① 행위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 즉 행위의 목적을 알고, 그것이 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② 적합성을 이해하는 것, 즉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아는 것 ③ 명상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 즉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마음을 항상 명상 상태로 유지하는 것 ④ 미혹됨이 없이 이해하는 것, 즉 자아라는 실체가 없는 객관적 과정으로 행위를 보는 것이다.¹⁾ 수행에 있어 분명한 앎과 마음챙김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함께 작용한다.

'내가 있다'라는 사건(有身見)을 기반으로 하는 빠빠짜(Papañca, 희론戲論)²⁾라는 개념적 구조물은 대상과 육근의 촉으로 생겨나는 직접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유리시켜버린다. 지각을 오염시키는 빠빠짜의 개입 없이 몸(身), 느낌(受), 마음(心), 법法 이 4가지 대상을 끊임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관찰하는 것이 사념처四念處 수행이다.

대념처경大念處經[Mahāsatiṭṭhāna Sutta]³⁾에는 사념처 수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

다. 신념처身念處 수행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감 키우기,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 몸의 4대 요소의 관찰, 몸의 자세의 관찰, 몸의 변화를 철저하게 아는 수행을 소개한다. 수념처에서 수행자는 고수苦受, 락수樂受,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를 관찰한다. 심념처 수행은 현재 일어나거나 사라지거나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마음을 바르게 알아차린다. 법념처 수행은 법에 대한 관찰(Dhammānupassanā, 법法), 5가지 덮개(Nivāraṇa, 오개五蓋), 5가지 무더기(Khandha, 오온五蘊), 6가지 감각기관(Āyatana, 육처六處), 칠각지(Bojjhanga, 七覺支), 사성제(Catusacca, 四聖諦)에 대해 관찰하는 수행이 있다.

3-3. 바른 삼매[正定]

다음으로 살펴볼 팔정도의 정의 요소는 바른 삼매이다. 삼매는 깨달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여기 삼매의 무더기[定蘊]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축제를 벌이자' 하면서 세 친구가 정원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친구가 꽃이 활짝 핀 짙따까 나무를 보고 손을 뻗어서 꺾으려 해도 꺾을 수 없었다. 그때 두 번째 친구가 등을 구부려 주자 첫 번째 친구가 그의 등에

1) 소마 테라 『마음챙김의 길 The Way of Mindfulness』(BPS 3rd ed., 1967) pp.58~97

2) Papañca: '개념이 확장된 것'·'개념의 증식'이라 한다. 이런 개념적 확장이 일어나는 원인은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망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삼사화합(접촉) 감수(느낌) 지각 사유 망상의 단계로 발전한다. 붓다께서는 "희론은 질병이고, 희론은 종기이고, 희론은 화살이다. 그러므로 비구는 희론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고 보릿단의 경(Yavakalāpīsutta, S35:248)에서 말씀하셨다.

3) 『장부』 22경

올라섰지만 불안정하여 꽃을 꺾을 수 없었다. 그 때 세 번째 친구가 어깨를 대주자 첫 번째 친구는 두 번째 친구의 등에 올라서서 세 번째 친구의 어깨를 잡고 마음껏 꽃을 꺾어 치장하고 축제를 벌였다. 여기서 세 친구는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등으로 구성되는 바른 삼매의 무더기와 같다. 명상의 대상은 활짝 핀 잣까 나무와 같다. 자기의 성질만으로는 대상에 하나 된 상태로 집중할 수 없는 삼매는 손을 뻗어도 꺾을 수 없는 첫 번째 친구와 같다. 정정진은 자기 등에 올라서도록 등을 구부려 준 두 번째 친구와 같다. 정념, 즉 마음챙김은 어깨를 주면서 옆에서 있는 세 번째 친구와 같다. 바꿔 말하면 정진이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마음챙김(사띠)이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역할을 할 때 그 도움을 받아 삼매는 대상에 하나 된 상태로 집중할 수 있다.⁴⁾

4. 八正道의 혜慧의 요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혜학의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팔정도가 깊어질수록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지혜의 요소는 계와 정의 요소가 제거하지 못했던 '잠재적 성향(anusaya)'의 뿌리 깊은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4-1. 바른 견해[正見]

바른 견해란 사성제四聖諦(catvāri āryasatyāni)를 바로 아는 것이다. 사성제란 성스러운 진리, 즉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이다.

고성제苦聖諦란 생로병사,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五趣纏] 자체를 괴로움이라 정의한다.

집성제集聖諦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갈애를 말한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欲愛], 존재에 대한 갈애[有愛],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無有愛]이다.

멸성제滅聖諦란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도성제道聖諦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苦滅道聖諦]이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로 八正道를 말한다.⁵⁾

바른 견해를 통해 우리는 수행의 첫 관문에 들어서게 되며, 열반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바른 견해는 八正道의 요소들이 성숙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한다. 모든 八正道 요소들의 기본 토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4) 『청정도론』

5) 『상응부』 56법집 11경

4-2.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사유란 탐욕 없음, 악의 없음, 해코지 없음으로 정리된다. 탐욕은 지혜로운 숙고(yoniso manasikāra, 여리작의如理作意)로써 근절할 수 있으며, 악의는 자비慈悲를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해코지의 사유는 연민憐愍을 통해 대체될 수 있다.

5. 열반과 도道와 과果

팔정도의 요소들이 성숙되면 통찰의 대상은 세간적 지혜가 아닌 출세간적인 대상인 열반涅槃이 되며 마음은 유위법이 아닌 무위법인 열반을 즉각적 깨달음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는 출세간도出世間道 lokuttaramagga라 불리는 지식 또는 심적 사건이며 이 도道는 특정한 번뇌를 제거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각 도에는 과果[phala]라는 또 다른 출세간의 의식[出世間識] 상태가 곧바로 따라오는데, 이것은 도의 결과물이다. 이 과에서 마음은 세간 의식의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기 전에 잠시 몇 순간 동안 열반의 더없는 행복과 평화를 누린다. 첫 번째 도와 과를 경험한 사람은 수다원須陀洹[sotāpanna], 두 번째는 사다함, 세 번째는 아나함, 네 번째는 아라한이 되며, 수다원도에서는 존재를 윤회하도록 하는 10가지 족쇄 중 ①개아가 실존한다는 견해[有身見] ②의심疑 ③규준과 의식儀式에 대한 집착[戒禁取]이 제거되며, 사다함도에서는 탐진치의 뿌리가 전체적으로 약화된다. 아나함도에서는 ④감각적 욕구[欲食]와 ⑤힘오[瞋]가 사라지며 아라한도에서는 ⑥색계 존재에 대한 욕구[色食] ⑦무색계 존재에 대한 욕구[無色食]

⑧자만[慢] ⑨들뜸[掉舉] ⑩무지[無明]가 완전히 끊어진다.

6. 나가며

팔정도는 '잠재적 성향(anusaya)', '드러나는 성향(pariyuṭṭhāna)', '범함 성향(vitikkama)'을 가진 세 층의 번뇌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완전한 열반으로 이끄는 실천적이며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팔정도의 길을 일상에서부터 착실하게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한 만큼 고통의 소멸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비구 보디, 『팔정도(聖八支道)』, 고요한 소리, 2023
- Vinayapiṭaka Chatṭha Saṅgāyanā Tipiṭaka
- THE BOOK OF THE DISCIPLINE 6 vols, TRANSLATED BY I. B. HORNER, M.A.
- The Buddhist Monastic Code I, II, Translated & explained by Ṭhānissaro Bhikkhu
- 진재성 역, 『비나야빠따까』, 한국빨리성전협회, 2020
- 담마다야다 비쿠, 『위나야』, 초기불교 세나니 승원, 2023
- 윤희조(2006), 『초기 경전에 나타난 망상(Papañca)에 대한 일고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연구소

번뇌팔아 지혜벌기

- 붓다선원 진경스님을 찾아 뵙고 -

선혜 / 대교과(4학년)



연두빛 수줍던 산등성이서부터 산기슭 한켠 구석진 곳마저
물 올린 가지끝이 청량하나니 어느새 완연한 봄이라.

선배탐방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싱그러운 5월의 어느 날, 우리는 일상을 뒤로하고 붓다선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배 스님께서는 어떤 나무 아래 수행을 하고 계실까?’ 궁금함을 이어가던 것도 잠시, 인터뷰에 앞서 짧게나마 도량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해발 700고지, 마을의 끝자락이자 하늘 아래 첫 집인 도솔선방이 마치 아틀라스가 지구를 떠받치듯 선원의 중심이 되어 하늘을 품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사람 구경하기 힘든 시골임이 분명한데 도량을 가로지르는 대중이 적잖이 많으니 놀라움의 연속이다. 따뜻한 차 두어 잔이 긴장감을 녹여주었던 걸까? 선원을 둘러본 소감을 시작으로 말문이 트였다.

“대웅전 주련을 비롯해서 붓다선원에서는 한글 의례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듯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면 새기지 않아도 되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전통도 좋지만 시대에 따라 효율적인 가치를 생성해야 현대인들의 가슴에 부처님 법이 와 닿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설하셨던 첫 구절인 ‘모든 불선을 멈추고 모든 선을 실천하여 마음을 깨끗이 함이 부처님 가르침일세.’ 를 대웅전 주련에 새겼고요, 보는 사람들이 쉬워합니다.”

작지만 멋스러운 '큰법당'이라는 현관을 필두로 도량 곳곳에 친절하게 자리 잡은 한글들이 친숙한 듯 새롭게 다가왔다. 스님의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라는 간결한 현답에서는 선원을 찾는 이들에 대한 자비심과 지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도량을 둘러보니 행자님들부터 재가자분들까지 대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붓다선원에서는 꾸준히 출가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원력으로 인재불사를 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등의 질문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알 수 없는 것들이 괴로워 20살에 출가를 했는데, 드디어 뜻이 맞는 도반들을 만나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을 알 수 있게 되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여전히 괴로워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고 홀로 살다 고요히 죽을 수 있기를!' 이라는 서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미안마에서 10년간의 수행을 한 후 고요히 살기 위해 거창, 이 산골에 들어왔는데,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숙고해 보니, 예전에 저는 홀로의 행복을 몰랐기 때문에 관계에 능숙하지 않고 적절치 않은 집착이 생길까 두려워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인연을 받아들이며 관계 속에서도 홀로의 행복을 수행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려는 사람이나, 여기서 살다가 죽고 싶다는 사람이나, 숙소를 더 짓자고 하는 사람이나 인연을 따라 거부하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애쓰지도 않으면서 살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잠깐이지만 한창 불사 중인 붓다선원에서 머무르는 동안 여러 공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스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선방에 들어서면 더없이 여법한 선원이요, 단기출가 체험 중인 행자님들의 안행은 여느 큰 전통 사찰의 면면과 다르지 않다. 또한 도량 곳곳, 여러 국가에서 모인 봉사자들의 일상은 해외 봉사캠프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끔 했다.

큰 불사에 뜻을 두신 것이 아니고 시절 인연에 거스르지도 안주하지도 않았더니 큰 원림이 되었을 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시지만,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렇



게나 큰 나무를 가꾸어 주심에, 그래서 그 그늘 아래 많은 이들이 함께 수행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출가에 대한 뜻을 품을 수 있게 한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함을 느꼈다.

“제접하실 때 특별히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매주 대중이 모여 일어난 지혜와 사라진 번뇌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번뇌를 팔아 지혜를 벌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분발시키는 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제가 어떻게 탐·진·치를 다뤄야 할지를 몰라 답답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배우고 실천해서 알게 된 행복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느끼고 실천합니다. 때로는 너무 과격하게 있는 대로 말해서 번뇌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지! 번뇌 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를 일으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견디서 떠나더라도 바른 스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번뇌는 용납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번뇌를 처내는 부분을 신경 씁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번뇌를 팔아 지혜를 버는 것은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고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강원생활이란 단어 앞에 항상 '바쁜' 을 방패삼아 세우며 수행과 생활을 분리시켜 회피해온 부끄러운 지난날들이 떠올랐다.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직면해 객관적으로 봅니다. 마음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한 순간 한 마음밖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화난 마음을 보는 마음이 일어날 때 화난 마음은 사라집니다. 마음을 봐도 사라짐을 볼 수 없다면 고요한 집중력을 기르는 선정수행을 먼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숨에 기대어 봅니다. 숨은 우리의 마음을 갈망과 혐오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는 참 좋은 대상입니다. 숨에 기대어 화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마음을 보면 됩니다. 단지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이러한 마음을 '의도하는 자' 나 이 마음의 흐름 저편에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어떤 실체는 없음을 연기를 보면서 단지 '무아' 일 뿐이구나! 라고 아는 지혜의 구슬을 꿰니다.

그리고 성냄이 일어난 원인이 있습니다. '아,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라고, 이 5온을 '나' 로 생각하며 자만과 함께 존중받기를 바랐기 때문이구나...' 등으로 성냄 속에 있었



던 탐욕이나 무지를 보게 되면 원인인 탐욕이나 무지가 녹으면서 결과인 성냄까지 사라지거나 얹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뇌 보아 지혜 일으키는 수행을 사람들이 사고파는 것 좋아하니까 기억하기 쉽게 번뇌 팔아 지혜 벌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번뇌 즉 보리잖아요? 모든 번뇌는 팔아 지혜로 바꾸어야 해요.”

스님의 단정하고도 단호하신 어조로 말씀하신 행복에서는 번뇌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보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스님의 수행 경험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선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궁금함이 있습니다. 강원에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인들을 위해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의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을 하시기 이전에 간화선을 하신 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3년간 간화선 수행을 했습니다. 이뻏고! 화두를 들며 소소영영昭昭靈靈이 아는 이놈이 무엇인고!를 궁구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잡아 가며 보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계를 하고 도반과 함께 큰스님을 찾아 문답을 갔습니다. ‘스님, 저는 단지 마음이 마음을 보고 아는 것 같고 그 너머에 소소영영이 아는 놈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이 놈이 무슨 생각이 이리 많노! 그냥 단지 이뻏고! 하여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박사가 되어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는 은사 스님의 말씀에 운문사를 졸업하고 동국대를 갔지만 졸업논문을 쓰며 학문으로는 배가 부르지가 않음을 느끼고 선방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선방을 간 도반 스님들이 3년 안에 도가 트여야 한다고 했는데, 할수록 모르겠는 간화선 수행에 한계를 느끼던 차에 존경하는 도반 스님의 추천으로 미안마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안마에는 수행 면담시간과 법문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감로수와 같은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먼저 계를 청정히 지키 몸과 말의 업을 깨끗이 하고 그다음 마음을 깨끗이 하는 선정수행을 하고 고요히 집중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의 속성을 파악하는 위빠사나 수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수행교재가 경전을 바탕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수행로를 따라 8정도를 잘 수행하신 스승님이 인내와 자애로 가르쳐 주시는 시스템은 저에게는 마치 그리운 부처님을 만난 듯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저는 미안마의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10년을 견뎠지만, 지금은 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에서도 붓다께서 보여주신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 법문에서도 K명상을 이끄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간화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마타 위빠사나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한국불교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를 수용한 선명상을 실천·연구하고 펼치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원시절 열정적으로 선지식을 찾아다니셨던 ‘진경스님 구법여행기’를 듣다보니 어느새 구름이 한층 내려앉았다.

“마지막으로 학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것들로 고통스럽고 괴로워 출가했지요? 그러니 이 괴로움을 풀어야 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아보는 수행을 학인 때부터 한다면 그런 스님은 10년 안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학인 때 부지런히 스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우지 못하면 졸업하고서는 스님이지만 마음은 출가 전의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스님이 우울하고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간에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넘을 수 있는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습을 길러야 합니다. 참회의 절을 하든지, 화두를 들든지, 숨을 보든지, 자신의 명상 주제 하나를 지니고 실천함으로 괴로움을 넘어서는 출가의 행복이 깊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출가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스님이 되어야 합니다.”

스님의 낭랑한 음성을 뒤로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학인들의 두서없는 질문들에도 혼연히 지혜를 나누어 주심에 충분히 감사드리지도 못한 채 서둘러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내린 봄비가 토닥토닥 대지를 두드리고 있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에 끊임없이 마음을 붙이고, 열은 바람결에도 크게 흔들리고야 마는 이 범속한 마음들에 실망해서, 어제의 번뇌를 모양만 다르게 재포장하는 습관에서 멀어지고 싶다면...

주인공아, 이젠 더 이상 지혜의 구슬을 모으지만 말고 웨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 >





가지산

해묵 / 사진화(2학년)

가치산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문명이 어우러져 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성냄에서 벗어나는 마음챙김

혜명 / 사교과(3학년)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금당 대방에 앉아있는 입선시간이면 한줄기의 부드러운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산을 바라보면 바람에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경계에 그대로 순응하는 부드러움을 배우게 됩니다.



심화 3학년 혜명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나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른다.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 (『범구경』)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범의 향기가 중생들을 향해 흘러넘치기를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말들을 가슴에 품고 지내십니까?

부처님 말씀, 희망의 말, 위로의 말, 가슴 아픈 말, 상처 되는 말... 각자 다양한 말들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책상에 앉아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다가온 친구와 주고받은 말들입니다. “무슨 화난 일 있어?” “아니, 없어.” “근데 얼굴이 왜 화난 표정이야?”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제 기억 속에는 “왜 화난 표정이야?”라는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더군다나 스님의 얼굴이 편안해야 하는데... 책임감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강원에서도 몇몇 상반 스님들이 “웃으며 지내요.” 걱정을 해

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익혀온 무뚝뚝한 표정의 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타인과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성냄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냄으로부터 어떻게 부처님 법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냄을 『청정도론』에서는

“마치 두들겨 맞은 독사처럼 잔인함을 특징으로 가진다. 그것은 마치 한 모금의 독처럼 퍼지는 역할을 한다. 혹은 자기의 의지처를 태우는 역할을 한다. 마치 숲속의 불처럼 성내고 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양곳따라 니까야 『분노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을 내고 성냄에 압도되고 성냄에 정복되면, 적을 기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일곱 가지 법이 찾아온다.

첫째는 흉한 꼴이 된다.

둘째는 잠을 잘 못 잔다.

셋째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만 본다.

넷째는 재물을 얻지 못하고 있던 재물도 잃어버린다.

다섯째는 명성을 잃어버린다.

여섯째는 친구와 친척 및 가족이 그를 떠나버린다.

일곱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비참한 곳, 불행한 곳, 과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이 왜 일어납니까? 불만족, 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탐욕, 오랜 윤회의 습성입니다.

둘째는 무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주의력입니다.

『맛지마 니까야』 『툼의 비유경』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인욕의 수행으로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우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냄을 제거하는가?

성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숨보기, 사마타, 고요한 집중
2. 성내는 마음이나 괴로운 느낌 보기
3. 성내는 원인 보기,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있는 그대로 보기
4. 업의 상속자임을 숙고하고 상대 이해하기
5. 자애로운 마음 갖기
6. 참회, 감사, 서원 세우기

“치문, 사집 때는 상반에게 인내하고, 사교 때는 도반에게 인내하고, 화엄은 자신에게 인내하라”

담임강사 스님께서 수업 때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금당에서는 자신의 업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최근에 제 마음 안에 일어난 성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대방에 있는 이불에 오백원 동전만 한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반에게 물어보니 홍삼을 먹다가 흘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얼룩을 닦아주겠지 생각했고 방선 전까지는 시간이 40분이 넘게 남아 있어서 얼룩을 흘린 도반에게 애벌레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선 전까지 처리하지 않는 도반을 보니 성냄이 올라왔습니다. 성냄의 특징이 두들겨 맞은 독사처럼 잔인한 것처럼 정말 숨이 가빠지고 그 도반을 향해 잔뜩 독이 올라왔고 잠들기 전 불쾌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어나서 정량을 오고가며 어제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번뇌가 새벽부터 괴롭혔습니다.

오백전 새벽기도 중에는 제대성중 징근을 하는데 입으로는 제대성중을 크게 하는데 머릿속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해 안 돼’ 하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대방에 들어가면 먼저 그 얼룩이 당장 눈에 들어와 기분이 나빠졌고 그 도반에게 협조하지 않으리라 앙심을 품었습니다.

왜 나만 걸리는가, 다른 도반들은 걸리지 않는가, 궁금해서 다른 도반에 물어봤습니다. 그 도반은 얼룩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르구나. 내 문제구나. 각자의 걸리는 화의 원인이 다르구나.



삼화 3학년 해명

제 마음이 문제이기에 숨보기를 하며 일어난 번뇌를 다른 대상에 집중하였습니다. 요즘 전산실 입구에 붙어있는 글귀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에 사띠 꽃이 피었습니다.” 사띠 꽃이 피었습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얼마나 마음챙김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마음챙김을 하며 화내는 원인에 대해 숙고해 보니 책임 지지 않는 태도를 싫어했고, 제 말이 무시당 하는 느낌이 있었고, 도반이 당연히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의 태도는 도와 주지도 않고 말투도 지시적이었습니다.

부처님 법의 인과는 역연해서 저의 변명이나 합리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계, 대상 탓이 아니라 원인을 제 안에서 찾아보니 이해가 되고 화가 누그러들었습니다. 각자 업의 상속자임을 숙고하고 도반의 좋은 점을 보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 제 좁은 견해가 부끄러웠습니다. 용심用心을 잘 해야 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바늘조차 들어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백전 기도 때는 부처님 앞에 저의 성냄과 자만을 참회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축원을 했습니다. 내려놓으니 가벼워졌고, 대중생활의 큰 이익은 상대를 통해 자신을 반조해 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화를 낼 수 없을 것이며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자애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매일 저녁 제가 하고 있는 “발원과 공덕 회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발원

붓다, 담마, 상가에 예경하고 귀의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여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

오온을 몸·마음·무상·고·무아·부정으로 보아 자만, 갈애, 사건 버리기를 발원합니다.

언제나 깨어 있음으로 탐·진·치에서 벗어나 만족, 자애, 지혜 깊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마음·몸·입으로 지은 저의 모든 선한 공덕 모여 생멸하는 연기법 보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그들이 지은 선업의 힘으로 슬픔이 없는 열반에 이르기를 발원합니다.

붓다께서 보이신 바른 법이 이 땅에 오래 머물기를 발원합니다.

공덕 회향

갈애·생에 대한 집착·사건·무지 등의 번뇌로 물든 모든 존재들에게 오늘 하루 수행하고 계를 지키며, 보시하고, 법문을 설하고 들은 저의 이 공덕을 공평히 나누어 드립니다. 이 공덕이 탐·진·치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선정과 열반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ॐ

정견으로 가는 길

정견 / 사집과(2학년)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각 개인을 구별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명과 같은 종교적 이름은 그 의미와 상징성이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법정스님은 본명인 박재철로 태어나서 스님이 처음 받은 법명은 '도신道信'이었지만, 어느 날 그의 스승이었던 효봉스님이 "너는 이제부터 법정法頂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법정'이라는 이름은 '법의 정상' 또는 '법의 정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법정스님의 철저한 수행과 깊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법정스님은 주로 산속에서 생활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실천하였고, 이러한 생활 방식을 통해 참된 행복과 깨달음을 추구하셨습니다. 스님의 저서인 『무소유』는 이러한 삶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심화, 2학년 정견

이처럼 이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고, 보다 경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식발하고 정건이란 법명을 받았을 땐 그냥 단순히 '바르게 보라' 라는 뜻이겠거니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를 알고 난 후 그 수행 방법의 첫번째가 정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건이란 개념은 제게 여전히 어렵고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건' 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건' 으로서의 실천하는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정건은 팔정도의 가장 첫 번째 수행 방법으로 바른 견해(正見)를 말합니다. 빠알리어로 삼마뎃티(sammā-ditthi)입니다. 삼마(sammā)는 '바른' 이라는 뜻이고 뎃티(ditthi)는 '보다,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령 우리가 길을 나선다고 해 봅시다.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발걸음을 내디딘다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마땅히 목적지와 방향부터 정하고 길을 나서야겠지요. 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가 제일 앞에 섭니다.

실천도로서의 바른 견해는 '있는 그대로' 를 보는 눈을 갖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좁고 낮고 편중된 눈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라는 말도 여러 수준이 있을 텐데 최상의 지혜자가 궁극적으로 가능한 견해, 그것이 최고 수준의 바른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른 견해는 사성제(四聖諦)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사성제를 토대로 세상과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컨대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눈으로, 사성제를 꿰뚫는 그 안목으로 이 세상과 인생과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견해가 될 것입니다.

견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 때 그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옳은 견해라도 고집하고 집착해서 강요하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상대적일 뿐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건은 가장 옳은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견해란 견해가 없는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맛지마 니까야』 9번 경, 『바른 견해 경(Sammaditthi Sutta)』에서 부처님께서 "여래는 그 이

면 견해도 취하지 않으며 모든 견해를 없애버렸다. 여래는 모든 견해, 모든 짐작, 모든 '나' 라는 견해, '나의 것' 이라는 견해를 깨버렸고 떠났으며, 멀해버렸고 없었기에 그 어떤 사건도 생겨나지 않아 해탈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없었더니 부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고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불교 공부도 세간의 공부처럼 불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어느 게 더 옳은지 그른지 따져 나가는 가르침이며 또 많이 배우고 채우고자 했고 앎을 늘리면 깨달을 수 있을 거란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불교 공부를 접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수많은 견해들을 싹 다 버리는 것이 정견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니 이것만 믿어라, 다른 것은 싹된 것이니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 우리는 그것만 받으면 정견을 증득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 삶의 괴로움은 정견을 지키지 못해, 정견에 대한 지혜나 안목이 없는 데서 옵니다. 괴로워하는 마음의 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특정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견해, 그것을 믿어 버리면 집착이 생기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성냄, 화가 일어나고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음, 치심인 것입니다.

팔정도를 닦으면 삼독이 소멸돼서 열반 해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견에서 바로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정견만 바르게 닦을 수 있으면 탐진치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사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건인 줄 모르고 그것을 쥐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이 옳으니 나쁘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것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고집하는 그 생각이 사건인 줄 모르고 말이죠.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 고집하겠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건은 싹된 견해가 아니라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정견에서 말하는 사건은 옳은 것 그른 것이 다 사건입니다. 이 양극단을 벗어난 것, 중도적인 견해가 팔정도의 정견입니다. 들렸다는 생각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사건이고, 누가 봐도 옳은 것을 옳다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 첫 번째 '정견' 은 옳은 견해가 아니라, 옳다거나 그르다고 하는 분별심이 없는, 양극단의 치우친 견해가 없는, 어떤 견해에도 취착함이 없고, 기준이 무너졌을 때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본래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설고,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부터 앞서고,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평가 받는 것 같아 싫고, 그래서 "전 못해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라는 말을 먼저 내뱉고 이렇게 뒷생각이 많아서 저지르지도 못하고 온갖 분별 망상 때문에 항상 주저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내 견해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한 번은 수업시간에 범명에 대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 도반 스님이 은사 스님이 본인과 반대되는 걸 범명으로 지어준 것 같다고 말하길래 "그럼 난 사견덩어리라 정견으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라고 하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 기억나네요.

'정견' 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견이 바로 서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게 공하다는 진실에 뿌리내려 반드시 이래야 하고 반드시 저래야 하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괴로움도 없이 삶을 보다 가볍게 살 수 있을 텐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말이지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자유가 오지 않을까요?

정견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길 서원합니다. ☸

正見.





윤문사역사문화관 Grand Open - 놀러 오세요!



우리 화엄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남산의 모든 불보살님께 빌어드립니다

윤문사 칸타빌레

- 구름도, 꽃도, 스님들도
부처님 법 노래하네 -

편집부



아름다운 숲속에서 eat, play, share - 어름불교학교 준비가 한창



법문 들으러 올 시간입니다
by 작은 부전 스님



전국 학인 스님들의 치열한 글든벨 현장
- 유문사 스님들의 활약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소리에 축생계의 모든 존재들이 법에 눈을 수 있기를



제가 들게요 - 아니요, 제가 들게요 (도반사랑)



사집반 스님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키운 야채 - 당근 사세요!!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단정제일 위익존자

쌀 한 톨의 선용기심善用其心

혜성 / 대교과(4학년)

안녕하십니까? 화엄반 혜성입니다.

무더운 여름 노전 소임을 맡았습니다. 대웅전 청소하러 가는 길, 부처님 전에 놓여진 초 한 자루, 쌀 한 봉지 그리고 향로에 꽂힌 수많은 향, 예불 시간 법당을 울리는 불자들의 웅장한 염불 소리. 많은 이들의 염원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대중 스님들께서는 쌀 한 톨의 무게를 아십니까? 일미칠근一米七斤! 쌀 한 톨의 무게가 무려 7근이라고 하니 그 무거움은 가히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공양을 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법상을 밝히고 있는 이 초,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는 에어컨, 무엇보다 하루 세 끼 우리의 몸을 보전하기 위해 먹는 음식들. 이처럼 우리 출가수행자들은 불자들의 간절함이 가득 담긴 시주물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 지친 몸을 이끌어가다 보면 시은의 지중함을 망각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부처님과 옛 어른들께서는 시주의 은혜가 지중함을 거듭거듭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서천28조 가운데 제16조 라후라다 존자의 아버지 범마정덕은 전생에 한 비구를 시봉하며 여러 가지 의식주를 공양하였으나 그 비구는 정진을 게을리한 까닭으로 도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그 집에 버섯으로 환생하여 시주의 은혜를 갚았



다는 일화가 전등록에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자경문에서는 '금생수생에 미명심未明心 하면 적수滴水도 야난소也難消니라.'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소화하기 어렵다는 말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출가자들이 시은을 갚기 위해서는 시주물을 아껴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복과 지혜의 구축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대중 스님들께서는 복을 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운문사 생활 4년 차에 접어든 지금!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복 짓는 일은 양보 말라 서던 어른 스님의 말씀에 제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과유불급이었을까요? 의도와 다른 결과들에 실망하며 '잘,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중 물건을 아끼고, 내 것을 나누고, 남들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것으로써, 이만하면 잘 사는 것이라 위안 삼으며 마음 한 구석 빠른 속도로 커가는 번뇌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 『금강경』 제10분 「장엄정토분」에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머무르는 마음을 써왔고 그 집착하여 머물렀던 마음들이 곧 고통을 이루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여러 선사들께서는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어서 마음이 없는 것이 곧 도라는 무심시도無心是道를 말씀하셨건만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애쓰는 마음은 저로 하여금 열심히 살았다는 상에 머무르고, 인욕 했다는 상에 머물게 했으니 애 쓴 만큼 끝없이 무언가를 구하며 결과에 울고 웃는 제 자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노력이었을 뿐 바른 노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스스로가 부처임을 믿지 못하고 수행하기를 어려워하는 지 같은 수행자를 위해 화엄경 정행품에서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거듭 묻습니다.



“어떻게 허물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롭지 않은, 훼손할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물러남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뛰어난, 청정한, 물들지 않는, 지혜가 선도하는 몸과 말과 뜻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찬탄하며 문수보살은 말씀하십니다.

“선용기심善用其心이라. 마음을 잘 쓰면 온갖 뛰어난 고요한 공덕을 얻느니라.”

이 선용기심으로 공덕을 얻는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세울 수 있는 보살의 서원 141개의 계송으로 답변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각에 오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정법 누각에 올라서 일체를 철저히 보기를 원하며, 잠에서 막 깨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일체 지혜를 깨달아서 시방을 두루 살피기를 원하며, 길을 걸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청정한 법계를 밟아서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원하며, 무더운 여름 지극히 더울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온갖 번뇌를 떠나서 일체 번뇌가 다하기를 원할지이다.

‘청정한 행’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채우는 모든 행주좌와 어묵 동정에서 마음을 잘 쓰는 것. 머무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마저도 머무르지 말고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며 평범한 일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중생에 대하여 서원과 보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도록 마음을 향상시켜야 할 뿐인 것입니다.

결과에 웃으면 중생이고 과정을 담담히 즐기면 보살이라고 합니다. 대중 스님들, 저와 함께 보살이 되어 마음 잘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더 어렵다는데, 운문사 청정 도량에서 매일 아침 눈뜰 수 있음에, 안행 중 고개 들어 파란 하늘을 마주할 수 있음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저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다함이 없으리니. 생각 생각에 상속해서 사이가 끊어짐이 없고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이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게 하겠나이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卍



절에서 이렇게 신나도 되나요?

- 운문사 포교전법부¹⁾ 소개 -

안녕하세요, 운문사 포교전법부는 어린이 포교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여름이 되면 운문사는 해마다 사랑스럽고 멋진 어린이들을 초대해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이는 저희 부서의 메인 행사랍니다.

스님들과 부처님과 친해지고픈 어린이들은 운문사의 여름을 기대하세요!

이복소에서의 물놀이가 더위도 짹~ 날려주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리라 장담합니다!

이런 포교활동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어린이가 되어 활동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동련의 전국지도자연수회도 포교전법부가 맡은 프로그램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경주 아동복지시설인 대자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법회가 있습니다.

대자원 어린이들과 학인 스님들은 1:1 은사-상좌를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이면 어딘가에서 들리는 범고소리를 따라가 보세요!

학인 스님의 운문사 도량안내가 시작되는 신호랍니다.

이런 모든 운문사의 일상을 영상에 담아 유튜브로 보여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면 바로 찍어 보세요. :)



1) 前 교화부의 새 이름

진정한 yolo의 길

선재 / 사교과(3학년)

“선재선재라!”

요즘같이 즐길거리가 많은 때 이 좋은 날, 다른 곳에 가지지 않고 불교박람회 예법을 들으러 오시다니,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틀림없이 “선재선재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선재善哉’는 불교에서 칭찬하는 말로 ‘좋다, 훌륭하다’의 뜻으로, 빨리어로는 ‘사두’라고도 합니다. 귀하디 귀한 시간에 불법에 마음을 내어 지금, 여기, 제 눈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드물게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시기에 마음 깊이 찬탄합니다. “선재선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을 맡은 저는 범명이 선재입니다. 선재가 선재들을 뵙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불교박람회에 왜 오실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종단에서도 포교를 위해 ‘재밌는 불교’를 콘셉트로 잡기는 했지만 단순한 ‘재미’를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로 꼽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자면 불교가 ‘힙’해서 오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힙한-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한-것을 찾고 계셨다면,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찾아오셨고 참으로 잘 오셨다고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힙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없는 깨달음, 최고의 지혜를 얻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의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을 ‘세간혜’라고도 하지요.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을 지니신 분이라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여러 개입니다.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무상사, 세간해,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정말 많죠? 여래십호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세간해'입니다. 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 꿰뚫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도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불법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건강한 식이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많이 들어보셨지요? 부처님은 2천5백 년 전에도 간헐적 단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후불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채식열풍이 한창이죠? 채식의 선두주자는 단연코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엄격히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병이 들거나 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맛을 즐기기 위한 탐욕스러운 의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오후에 먹는 것뿐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는 육식도 허용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에 무게를 두고 명확히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yolo 열풍 아시죠? 부처님이야말로 yolo족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yolo-you only live once-,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한 번뿐인 삶. 저도 yolo하고 싶어서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yolo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재밌고 뭐지는 잘 모르지만 험해 보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많이 괴로우시죠? 요즘 20-30대 젊은이들이 우울증도 많이 앓고 자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사회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이 대체 왜 힘드냐고 해요. 무엇이 부족해서 힘드냐고. 정신상태가 나약해서 그렇다, 너무 부족함 없이 자라서 작은 고통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등 고통을 이해하기는커녕 여러분의 상처를 후벼파며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을 꿰뚫어 알고 계신 분입니다. 무엇이 고통인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부처님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변에서 yolo하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던가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택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끝이 없는 여행을 하고



있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고 하면서 한 번뿐인 여행이 아닌 끝이 없는 여행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더욱 피로할 뿐이죠. 만약 주변에서 본 yolo가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yolo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yolo인지 제가 오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부처님의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잘 들으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은 반드시 한 번뿐인 생,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끝이 있는 여행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여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왜 끝없이 헤매야 하는 걸까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은 여기보다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서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것에서 자기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한 번의 인생은 커녕 역겹을 윤회한다고 해도 진정한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각적 즐거움을 목표로 추구하는 한, 감각적 즐거움을 얻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한 번뿐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외국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호캄스를 즐기고, 새 차를 사고 흔히들 삶을 즐긴다고 착각하는 이런 행동들은 모두 감각적 즐거움을 위한 것들이며 감각적 즐거움이란 본래 끝이 없기 때문에 결코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욕구와 욕망과 같애는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더 많은 것과 새로운 것을 거듭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감각적 즐거움을 그냥 따라가다가는 그 끝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삶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며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형제자매의 죽음을 겪고, 아들과 딸의 죽음을 겪고, 재산을 잃는 것을 겪고 병을 앓는 것을 겪으며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사대양에 있는 물보다 많다고 부처님께서 「눈물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감각적 행복을 따라가면 결코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yolo의 선구자이자 성공하신 분인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초기경의 도처에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으며,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라는 정형구가 많이 나옵니다.



예, 청정범행을 성취하여 할 일을 다 해 마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생 한 번으로 마칠 수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청정범행일까요?

「상웃다 니까야」 「어떤 빅쿠경」에서 어떤 빅쿠가 세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청정범행, 청정범행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떤 것이 청정범행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청정범행의 완성입니까?”


부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십니다.

“빅쿠여, 바로 이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팔정도야 청정범행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빅쿠여, 그리고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 바로 청정범행의 완성이다.”

바른 견해는 바르게 보기, 즉 치우침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사유는 바른 생각이라는 뜻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 바른 말은 바른 사유에서 비롯되는 언어적 실천입니다. 즉 거짓말, 속이는 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참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부정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른 사유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바른 생활로 일상 생활에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지니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른 정진은 바른 노력으로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바른 마음챙김은 바른 의식으로, 항상 이상과 목표를 간직하고 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른 삼매는 바른 명상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팔정도를 행하여 탐진치가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기나긴 삶의 여행을 끝내고 진정으로 한 번뿐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yolo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행복하고, 나도 남도 함께 행복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분께서 가르쳐주신 진정한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이 바른 길을 택한 분들이십니다. 이 여덟 가지 바른 길로 진정한 yolo여행을 떠나실 여러분을 예경 찬탄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 



마흔을 기다리지 않은 이유

- yolo의 끝은 어디? -

혜건 / 대교과(4학년)

Here & Now
행복한 MZ스님의
즐거 이야기



나는 밀레니얼 세대다. 손가락을 뻗면 디즈니 만화영화를



비디오로 보다가 실증이 나기도
전에 급격히

모든 것이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화된 세상에서 자랐다.



우리는 허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발명품,

수입품, 패션과

아이들의

탄생이 있는 삶

안에서도

동시에



권태와 귀차니즘에 빠져 자냈고,

뭔가 더한 자극만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글로벌 시대가 열리며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해 전세계의 인류가 서로 소통을 하며 각자의 스타일, 꿈,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모든 것이 융합되어 이 지구에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는데 - 많은 것이 부족한 세대였던 부모님들의 과잉양육과 과잉보호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 끌리는 대로 사는 우리는 Yolo족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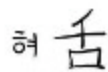
You Only Live Once

아직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10대 때는 연애, 연예인, 게임 정도로 스트레스를 풀다가
살짝 자유로워진 20대의 우리에게도 intoxicants가 생겼다.

그로 인해 단순히 감정이었던 연애가 몸을 함부로 다루는
육체적 놀이로 바뀌기도 하고, 단지 겉멋으로 하던 행동들이
도파민 분비를 위한 중독행위가 되기도 하며,
가끔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친구들도 볼 수 있었다.



철없는 우리들을 수단으로 돈을 벌어야 했던 기업들은
어떻게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시중에 내놓으면서



하악

意

감성에 즐거움을 끊임없이 제공했고,

그 모든 것에 길들여진 우리는 고전 문화의 감동과
전통미의 맛은 점점 잊어버리고 새로운 철학관을 펼쳐냈다.

남의 행복보다는 나의 재미,



모두의 안전보다는 나의 쓰릴,

남의 시각적 즐거움보다는 나만의 패션 등
이 지구는 오직 나의 욕망 중심으로 돌게 된 것이었다.

어른들이 허를 차며
 우리를 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 고리타분함에서 벗어나,
 단지 불필요한 엄숙함과
 지나친 끈대사상만 살짝 제거한,
 자유롭고 아주 합리적인
 유토피아를 이룩했다고 생각했다.

UTOPIA

그런데 정말 즐거운가?
 행복한가?
 이것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왜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와
 밤새 신나게 떠들어도
 다음날이면 기분이 째깍하고,
 왜 아무리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잔뜩 쇼핑하고도
 다음날이면 다
 환불해버리고 싶고,



왜 아무리 신나게
 술에 취해 춤추고 놀아도
 다음날 술에서 깨어나면
 다시 취해버리고 싶고,
 아무리 끝내주는 사람과 연애를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속
 이 구멍은 무엇일까?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서론이 되면 알게 되겠지 하고 살아봤다. 서론이 되었지만 알 수 없었다.
 마흔이 되면 알게 되겠지 하고 살려다가
 마흔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길을 선택했다.

이 문제의 풀이가 있는 길, **출가**



진흙 속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 『법화경 마음공부』를 읽고 -

정연 / 운문사승가대학원



일상에 내 마음 따라 이끄는 대로 연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어나는 6월, 법화경 속으로 나를 인도해 보는 날이 되길 바라며 이 한 권의 책을 권합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법화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다독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절망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문이 있다.'

그 순수한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번잡한 인생의 고통에서 한발 한발 빠져나와
평안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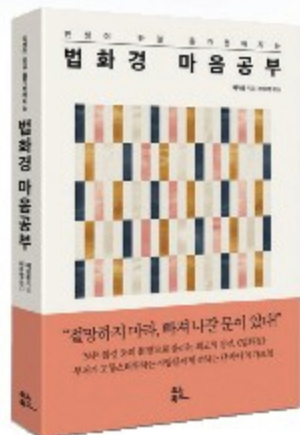
내 마음속에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

책의 - 초대하는 글에서 -

세간 무명 속에서 허둥대고 무명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 멀기만 한 진리

내 안에 붓다, 저미는 깊은 울림

바로 지금 이 순간 청정한 마음으로 일월광명과 함께 하는 대자연 속에서 '진흙 속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활나의 시간 동안 부처님의 경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적知的 겸손

'지적知的'이라 하면 지식知識 또는 지성知性的의 척도를 말하는데 요즘처럼 지나친 정보 속에 허우적거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이 지적 겸손(Intellectual humility)은 갖추기가 절대 쉽지 않은 덕목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 말이 맞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기억이 맞아요, 제가 숫자에 좀 강하거든요.”

이렇게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을 실제보다 과신하는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 또는 가치관을 부정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할 때 매우 언짢아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데, 이는 지적知的으로 겸손하지 못해서다.

반면에 지적 겸손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자각이 충분하기에 자신의 실수를 쉽게 인정한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견해도 존중하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속상해하기보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한다.

'지적知的'이라 하면 지식知識 또는 지성知性的의 척도를 말하는데 요즘처럼 지나친 정보 속에 허우적거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이 지적 겸손(Intellectual humility)은 갖추기가 절대 쉽지 않은 덕목이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잘 수용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제아무리 박사학위가 여러 개여도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이고 사실이다.'라는 생각에 빠

저 사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남은 물론이요, 늘 도돌이표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지적 겸손에 대한 이런 세간적 분석과 불교적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처님이야말로 '지식' 보다는 '지혜'가 우리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요인이라고 가르쳤다. 지혜란 세상의 이치 또는 제법諸法の 궁극적 실재, 즉 이 우주법계는 오직 인因과 연緣으로 상호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연기법緣起法을 통찰해 아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을 바르게 아는 일체지一切智는 오직 부처님만의 경계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며 무명無明에 뒤덮여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한다면, 이것은 곧 진리를 향한 길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렇게 지적 겸손은 지혜를 수반하고 있는 동시에 이 지혜는 지적 겸손으로 발현되는데, 선지식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겸허히 근면하게 수행해 나가면 누구든 반드시 지혜가 무르익어 절대적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모든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를 바란다.

우자자칭우愚者自稱愚 당지선힐혜當知善黠慧

우인자칭지愚人自稱智 시위우중심是謂愚中甚

어리석은 이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말하면

당연히 선한 지혜를 알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

이것을 일러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다고 한다.

- 「출요경出曜經」卷22, 「친품親品」中 - 〇

운문소식



▲ 운문사역사문화관 헌판식



▲ 로암미술관 방문



▲ 동련 전국지도자 연수회



▲ 길계포살



▲ 학인수행프로그램

- 5월 29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5월 31일 운문사역사문화관 헌판식이 있었습니다.
- 6월 1일 정토회의 법륜스님과 여러 국가에서 오신 출·제가자와 학인 스님들과의 간담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7일 호암미술관에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전시를 회주 스님을 비롯한 어른 스님들과 학인 대중 스님들이 관람하였습니다.
- 6월 8일 ~9일 경주 황룡사에서 개최된 동련 제76차 전국지도자연수회에 학인 스님들이 참가했습니다.
- 6월 10일 단오산행일이었습니다. 화엄반은 남산순례를 하였습니다.
- 6월 14일 여름철 길계포살이 원법 학감 스님을 단주로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5일 범공양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1일 여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8일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법사 스님: 화엄반 재선, 혜성 스님, 사교반 선재스님, 사집반 혜산스님, 치문반 재현스님)
- 7월 11일 ~12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1박2일간 진행된 <학인수행프로그램>에 학인 스님 36명이 다녀왔습니다.
- 7월 15일 사집반 스님들의 야채회향이 있었습니다.
- 7월 18일 치문반 스님들의 자색이 있었습니다.
- 7월 19일 종강을 하였습니다.
- 7월 20일 ~21일 'Eat, Play, Share' 라는 주제로 제44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1박2일간 열렸습니다.
- 7월 23일 여름철 마지막 자자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24일 36일간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송암사 • 27회 석우스님 • 김성욱 • 김숙희 • 노기용
- 붓다선원 법등 • 이길주 • 이정숙 • 이복희
- 정해옥 • 조서명 • 최오현 • 하옥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운문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①주소 ②수령인 ③부수 ☎ 010-7403-7118

* 주소록 업데이트를 위해 기존 정기구독자 분들도 편집실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전사물佛殿四物

범종梵鍾 (대종)



조석에불과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범종소리는 원음圓音이라고 하며

아침에는 28번(삼계28천三界二十八天),

저녁에는 33번(도리천의 33천)을 지옥부터 천상까지
우주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울립니다. ㄸ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두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 372-8800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이처럼 잘 수행된 마음에
욕망은 스며들지 않는다.

As a well covered house
is not penetrated by a rain,
thus a well developed mind
is not penetrated by greed.

雲門寺僧伽大學

• 운문지 발행에 사용된 종이는 100% 친환경 재생지입니다.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증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 · 통권 제168호 · 2024년 7월 23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일호)
고문 · 원법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혜건 / 편집위원 · 혜성, 선재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혜건 / 편집디자인 · 디자인마루 (053) 426-3395